BMW 320d

폴크스바겐 시로코 R-Line

올해 **수입차 공세** 거세다

신차 60여 종 출격 예고… 연비 높고 가격 낮춰

올해 국내 수입차시장은 어느 해보다 풍성할 모양이다. 출시를 예고한 신차가 60여 종이나 된다. 이에 따라 올해 수입차 판매는 10만 대를 처음 돌파한 지난해 실적을 넘어 12만 대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장밋빛 전망의 근거로는 2천cc 이하 중저가 차량 판매 호조, 20~30대 구매 증가, 차종 다양화에 따른 소비자 선택의 폭 확대 등을 들 수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덕분에 가격도 내리는 추세다. 한국수입차협회(KAIDA) 관계자는 "수입차시장이 아직 큰 규모는 아니지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외국차업체들이 판촉 강화에 나선 것은 당장의 매출보다는 성장세를 적시에 타서 차후 시장지배력을 키우려는 전략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유럽차 강세 이어간다

지난해 유럽차들의 국내 수입차시장 점유율은 74.1%로 압도적이었다. BMW가 2만3천293대로 1위였고 메르세데스-벤츠(1만9천534대), 폴크스바겐(1만2천436대), 아우디(1만345대)가 그 뒤를 이어 독일 4사의 시장점유율이 63.7%에 달했다. 도요타(5천20대)가 5위로 겨우 체면치레했지만 아우디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BMW는 신형 BMW3시리즈로 올해에도 1위 수성을 자신한다. 3시리즈는 BMW 승용차 부문 전체 판매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핵심 차종이다. 신형 3시리즈는 이전 모델보다 더 커졌지만 무게가 45kg가량 줄었고 연비는 약 10% 개선됐다. 디젤 320d가 2월 말 먼저 모습을 드러냈고 5월께 가솔린 328i가 나온다. 320d의 공인 연비는 유럽 기준 24.3km/L나 되고 국내 계산 방식으로도 약 22km/L다. 57L짜리 연료통을 가득 채우면 1천200km도 더 달린다는 계산이 나온다. 328i는 유럽 기준으로 15.6km/L다.

폴크스바겐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스포츠 쿠페 시로코의 2012년형 시로코 R-Line으로 시동을 걸었다. 스포츠 쿠페는 젊은층 중심으로 인기가 높아지는 추세로 직분사 디젤 2.0 TDI 엔진에 6단 자동변속기를 장착했고 170마력을 낸다. 가격은 4천220만 원으로 다른 수입 쿠페보다 싼 편이다. 폴크스바겐은 하반기에 트렁크 용량을 확대한 가족용 세단 파사트 신형을 공개한다.

크라이슬러 뉴300C

포드 퓨전하이브리드

수입차가 쏟아져 나온다. 국내 수입차업계 1위인 BMW가 신형 3시리즈를 필두로 7종의 신차를 출시하고 요사이 뉴 300C로 상승세인 크라이슬러와 포드도 각각 5종과 8종을 준비하고 있다. 도요타와 혼다는 새로운 하이브리드카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하이브리드 아성 다지는 일본차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차업계는 하이브리드카를 앞세워 시장 공략에 나선다. 엔진에 전기모터를 결합한 하이브리드카는 순수 전기차에 비해 친환경적인 면은 떨어지나 힘이 휘발유차 못지않고 연비는 최고 수준이다.

올 1월 디트로이트 모터쇼에서 첫선을 뵌 도요타 프리우스C는 공인 연비가 지금까지 나온 어떤 하이브리드카보다도 높은 35.4km/L다. '연비 종결자'로 불리던 기존의 프리우스는 32km/L. 한국도요타는 태양광 패널을 장착한 프리우스S, 한국형 내비게이션 등 사양을 고급화한 프리우스M, 내비게이션 등의 옵션을 빼고 가격을 낮춘 프리우스E 등 3종의 시판에 들어갔다. 가격은 3천만 원대 초반으로 구형에 비해 약 500만 원 싸다. 신형 캠리 하이브리드 역시 연비 등 성능이 향상됐는데도 구형보다 300만 원 인하했다.

혼다는 국내 최초로 홈쇼핑을 통해 하이브리드카를 판매하는 행사를 갖고 하이브리드 인사이트의 가격을 550만 원 내린 2천350만 원에 올렸다. 또 신개념 스포츠 하이브리드카 CR-Z의 편의사양을 축소해 110만 원을 낮춘 CR-Z 기본형을 3천380만 원에 내놨다. CR-Z는 2010년 일본 올해의 차로 선정된 바 있다.

미국차가 돌아온다

'기름 먹는 하마'라는 인식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던 미국차가 달라졌다. 연비와 이산화탄소(CO_2) 배출량을 개선했고 외관은 더 세련됐다. 수입차 등록대수 10위권 밖에서 맴돌던 크라이슬러가 1월에는 작년 동기 대비 43%나 성장하며 7위로 뛰어올랐다. 견인차는 크라이슬러를 대표하는 중형 세단 뉴 300C로 남성미가 물씬 풍기는 외관에 V6 엔진, 286마력의 고출력이면서도 연비는 18.6km/L로 더 올리고 CO_2 배출량은 144g/km로 동급 최저 수준으로 낮췄다. 가격은 5천577만 원이지만 8천만 원대 대형 세단과 비교해도 손색없다. 크라이슬러코리아는 연말까지 신차 5종을 내놓을 계획이다.

포드는 성능은 유지한 채 배기량을 낮춰 연비를 높인 친환경 엔진 '에코부스트'로 승부를 건다. 모두 8종의 신차 출격을 예고한 가운데 이미 올 들어 익스플로러 2.0 에코부스트와 하이브리드 중형 세단 퓨전하이브리드를 출시했다. 전기모터만으로 최고 76km/h까지 속도를 낼 수 있고 공인 연비는 16.7km/L다. 하이브리드 주행에 최적화된 LCD계기판 '스마트 게이지'는 주행 상태와 차량 정보를 실시간으로 전달해 경제적인 운전을 돕는다.

정승희 기자 qqutti@hanmail.net